

# 앙골라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12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8
IV. 국제신인도 .....	9
V. 종합의견 .....	11

## 앙골라(Republic of Angola)

### I. 일반개황

면적	1,247천 km <sup>2</sup>	G D P	800억 달러(2008년)
인구	18백만 명(2008년)	1 인 당 G D P	4,445 달러(2008년)
정치체제	공화제(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Kwanza (Kz)
대외정책	친서방 비동맹외교	환율(달러당)	75.17 (2008년)

- 아프리카 남서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앙골라는 한반도의 5.6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면적과 18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DR콩고, 잠비아, 보츠와나, 나미비아와 접경하고 있음.
- 석유산업이 GDP의 60%, 재정수입의 75%, 총 수출의 95%를 차지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고질적인 인프라 미비와 인적 자원 부재로 인해 제조업 등 여타 산업의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 정치적으로는 집권당인 인민해방운동(MPLA)이 장기집권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오는 2010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sup>f</sup>
경제성장률	20.6	18.6	20.3	13.2	-0.6
재정수지/GDP	7.4	14.8	11.5	8.9	1.9
소비자물가상승률	23.0	13.3	12.2	12.5	13.7

자료: IMF, EIU

#### □ 두 자릿수의 경제성장세 유지, 그러나 '09년 마이너스 성장 예상

- 2005-08년 앙골라 경제는 국제유가의 상승세와 신규 유전개발에 따른 원유수출 증가에 힘입어 연평균 18%에 달하는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 하였음(석유산업이 GDP의 60%를 차지).
- 한편, 2009년에는 OPEC의 감산결정으로 동국의 석유 일산량이 183만 배럴로 감소하고, 국제유가 하락세의 장기화로 인해 원유 수입(收入)이 상당 부문 감소할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은 -0.6%로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 그러나 2010년에는 세계 경기회복과 더불어 석유 생산량이 또다시 증가 하고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 非석유부문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경제 성장은 7.3%로 다시 회복될 전망이다.

○ 일산량 : 191만 배럴('08) → 183만 배럴('09) → 192만 배럴('10) → 200만 배럴('11)

#### □ 재정수지 흑자기조

- 재정수지는 그동안의 국제유가 상승세에 따른 원유 수입(收入) 증가와

정부의 보조금 축소 노력 등에 힘입어 대규모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2005-08년 동국의 재정수지 흑자규모는 GDP의 11% 수준을 기록하였음(석유부문이 재정수입의 75%를 차지).

- 2009년에는 석유 생산량 감소와 국제유가 하락세의 타격을 받아 재정수지 흑자규모가 GDP의 1.9%로 크게 축소될 전망이나, 2010년 이후부터는 경기회복에 힘입어 GDP의 5% 수준의 흑자기조가 예상됨.

#### □ 소비자물가 상승세 지속

- 소비자물가는 앙골라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화 정책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일머니 유입 확대에 따른 유동성 증가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2005-08년 연평균 15%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 2009-10년에도 대통령 선거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와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 회복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물가는 13%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 경제 구조 · 정책

### [구조적 취약성]

#### □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

- 석유부문이 GDP의 60%, 정부 재정수입의 75%, 총 수출의 95%를 차지하는 등 석유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등락이 국가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 취약한 사회기반시설

- 27년에 걸친 오랜 내전으로 인해 동국의 사회기반시설이 대부분 파괴

된 바 있음. 내전 종료 이후 전후 복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로의 80%가 파괴되어 있고, 철도운행 또한 극히 일부분의 지역에 제한되어 있으며, 전력 송전도 수도인 루안다(Luanda) 등 일부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 사회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

#### □ 국민 대다수의 절대빈곤, 인적자원 부재

- 고유가로 인해 유입되는 막대한 오일머니는 일부 엘리트 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며, 동국 내 부의 편중으로 인해 국민의 대다수가 절대빈곤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임.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앙골라 국민의 약 70%가 하루 2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또한 오랜 내전으로 인한 교육 인프라 미비로 인적 자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성장잠재력]

#### □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총 GDP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산업은 내전 종식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유전개발 및 국제유가 상승세에 힘입어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음. 2008년 일산량은 191만 배럴을 기록하였으며, 2010년 이후 석유생산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앙골라가 나이지리아를 이은 아프리카 제2위의 산유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Exxon Mobil社는 2008년 8월, 앙골라 심해 15광구 내 Kizomba C 프로젝트의 Saxi 및 Batuque 유전에서 생산을 개시하는 등 유전개발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 중에 있음.

- 다이아몬드 또한 생산량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07년 기준 연간 약 642만 캐럿의 생산량을 기록한 바 있으며(세계 4위, 아프리카 3위 수준), 다이아몬드가 향후 원유산업에 이은 앙골라 제2위의 수출 품목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정책성과]

### □ 정부 재정운용의 투명성 미비

- IMF,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는 앙골라 정부의 미흡한 재정운용을 취약점으로 지적하며, 구조개혁을 실시할 것을 요구해 왔음. 이에 따라, 현재 앙골라 정부의 구조개혁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투명성을 제고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며, 정부의 정책 일관성 부족, 부패 만연 등으로 인해 구조개혁 추진의 지연이 빈번한 실정임.

\*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 따르면, 앙골라의 투명성 순위는 145개국 중 133위의 매우 저조한 수준을 기록

### 3. 대외거래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sup>f</sup>
경 상 수 지	5,138	10,690	10,194	6,408	-1,413
경 상 수 지 / G D P	16.8	23.7	16.6	8.0	-1.7
상 품 수 지	15,756	23,085	30,735	42,932	24,969
수 출	24,109	31,862	44,396	63,914	40,705
수 입	8,353	8,778	13,662	20,982	15,737
외 환 보 유 액	3,197	8,599	11,197	17,869	14,525
총 외 채 잔 액	12,646	10,384	12,738	13,126	14,226
총 외 채 잔 액 / GDP	41.3	23.0	20.7	16.4	17.1
D . S . R .	11.4	13.6	10.1	7.7	9.4

자료: IMF, EIU

#### □ 경상수지 흑자기조, 그러나 '09년 적자전환

- 상품수지는 고유가에 기인한 석유수출 확대에 힘입어 흑자기조를 지속하고 있음.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2005년 158억 달러 수준에서 2008년 429억 달러로 세 배 가까이 확대되었음.
- 경상수지 또한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의 만성적인 적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대규모 흑자폭을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2009-10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세의 영향으로 석유수출이 절반 가까이 감소하고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

또한 악화될 것으로 보여, 경상수지의 적자전환이 예상된다.

- 상품수지 : 307억 달러('07) → 429억 달러('08) → 250억 달러('09)
- 소득수지 : -76억 달러('07) → -145억 달러('08) → -102억 달러('09)
- 서비스수지 : -127억 달러('07) → -218억 달러('08) → -160억 달러('09)
- 경상이전수지 : -222백만 달러('07) → -210백만 달러('08) → -164백만 달러('09)

## [외채상환능력]

### □ 외환보유액 양호, 점진적 외채구조 개선

- 외환보유액은 그동안의 석유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2008년 말에는 전년 대비 60%나 증가한 179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최근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로 외환보유액이 감소되고는 있으나,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환(換) 통제 강화 노력과 국제유가의 회복세에 힘입어 동국의 외환보유액은 또다시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외채 규모도 지속적인 개선 추세에 있음. 앙골라 정부는 막대한 오일 머니 유입을 바탕으로 2006년 12월 및 2007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파리클럽(Paris Club)에 총 23억 달러의 외채를 상환하였음. 이 같은 정부의 외채구조 개선 노력과 GDP의 지속적인 증대로 인해 2005년 41.3%에 달하던 GDP 대비 외채비중은 2008년에는 16.4%까지 감소되었음.
- D.S.R.도 점진적인 개선 추세에 있어, 단기간 내에 대외 지급능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GDP: 614억 달러('07) → 800억 달러('08) → 834억 달러('09)
  - 총 외채잔액/GDP: 20.7%('07) → 16.4%('08) → 17.1%('09)
  - 외채상환비율(D.S.R.): 10.1%('07) → 7.7%('08) → 9.4%('09)



### Ⅲ. 정치 · 사회동향

#### 1. 정치 및 국제관계

##### □ 산토스(Santos) 대통령의 안정적인 집권 지속

- 2008년 9월, 16년 만에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당인 인민해방운동(Movimento Popular de Libertacao de Angola: MPLA)이 압승한 바 있으며, 취임 31주년이 되는 2010년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도 現 산토스(Jose Eduardo dos Santos) 대통령의 안정적인 재집권이 예상되고 있음.

##### □ 미국 및 주변국과 양호한 관계 유지

- 미국과는 원유 공급을 매개로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 지도력을 바탕으로 주변국인 콩고공화국의 정권교체 및 내전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기니만 연해 접경 국가들에게 군사적 영향력(군사교육, 경찰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중서부 아프리카의 패권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 그동안 경쟁 관계에 있던 남아프리카공화국과도 2005년 2월 투자보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외 군사협력 강화 및 전기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도 체결한 바 있음. 남아공은 앙골라의 제 3위의 수입대상국으로서 교역량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으며, 2008년 9월 음베키(Mbeki) 대통령의 사임을 계기로 양국 간 관계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 최근에는 중국과의 교역 확대

- 2003년 중국이 동국 내 20억 달러 규모의 차관 공여 및 크레딧 라인(credit line)을 설정한 이래 중국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음. 최근에는

앙골라가 중국의 최대 석유 공급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중국기업 (건설, 상업, 전력, 광산업 등)의 對 앙골라 진출 또한 활발함.

## 2. 사회 및 소요사태

### □ 내전 종료로 사회는 안정 추세

- 1975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 이래, 식민지 시절 무장 독립 단체였던 앙골라 인민해방운동(MPLA)과 앙골라 독립민족동맹(UNITA)이 정국의 주도권을 놓고 27년에 걸쳐 내전을 벌여왔으며, 2002년 2월 반군 지도자 사빔비(Savimbi)의 사망을 계기로 내전이 종결되면서 정치적 안정을 회복해 왔음.
- 그러나, 내전이 사실상 종료되면서 주변국으로부터 귀국한 난민 110여만 명과 국내 내전으로 발생한 이재민 300만 여명에 대한 안정 대책 마련이 해결과제로 남아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ECD : 6등급 (2008. 10) → 6등급 (2009. 10)
- ICRG : 61/140 (2008. 11) → 68/140 (2009. 11)
- I.I. : 94/177 (2009. 3) → 91/177 (2009. 9)
- Euromoney : 96/186 (2009. 3) → 99/186 (2009. 9)

###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 중·단기 제한적 인수가능
- 영국 ECGD : 제3국 확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3. 외채상환태도

#### □ 외채상환태도 양호

- 고유가에 기인한 막대한 오일머니 유입을 바탕으로 2006년 12월 및 2007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파리클럽(Paris Club)에 총 23억 달러 (1989-2006년 사이 발생한 채무 연체)의 채무를 상환하는 등 외채구조 개선에 주력해오고 있음.
- 외환보유액이 최근 4년간 6배 가까이 급증하였고, D.S.R.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대외지급능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4.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3>

한 · 앙골라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6	2007	2008	주요품목
수 출	1,037	174	1,266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자동차 합금철선철 및 고철, 수산가공품
수 입	219	343	1	
합 계	1,256	517	1,267	

\*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 국교수립 : 1992년 1월 6일(북한과는 1976. 4. 15)
- 주요협정 :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93),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00)
- 우리나라와의 2008년 교역규모는 약 13억 달러에 달함.
  - 주요 수출품은 선박해양구조물, 자동차를 중심으로 12.7억 달러, 수입은 합금철선철 및 고철, 수산가공품을 중심으로 1백만 달러를 기록
- 해외직접투자(2009년 9월말 누계, 총 투자 기준) : 7건, 6,926천 달러

## V. 종합의견

- 아프리카 주요 산유국으로 부상 중인 앙골라는 GDP의 60%를 차지하는 석유부문의 견실한 성장에 힘입어 연평균 두 자릿수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음.
- 2009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세에 따른 원유수입(收入) 감소,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 악화의 영향을 받아 경제성장률, 경상수지, 재정수지 등 제반 경제지표가 악화될 전망이다, 2010년 이후 부터는 석유산업의 회복과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 非석유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된 성장이 전망됨.
- 정치적으로는 1979년부터 장기집권 중인 산토스(Santos) 대통령의 굳건한 기반 아래 정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오는 2010년에 치러질 대선에서도 평화적인 분위기 속에 산토스 대통령의 재임이 예상됨.

조사역 김예리(☎02-3779-6686)  
E-mail : [yeliekim@koreaexim.go.kr](mailto:yeliekim@koreaexim.go.kr)